

# 디젤 승용차 거침없는 질주 휘발유차 비중 과반 무너졌다

디젤 승용차의 거침없는 질주에 밀려 지난해 국내에 신규 등록된 승용차 가운데 가솔린차의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다.

최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새로 등록된 승용차 136만5862대 가운데 가솔린차는 66만1784대로 48.5%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승용차 시장의 대세를 통하던 가솔린차는 수년 동안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료비와 높은 연비를 앞세운 디젤차에 밀려 하향 곡선을 그려왔으나 점유율 과반이 무너진 것은 사상 처음이다.

2011년 승용차 신규 등록대수 가운데 가솔린 차량의 점유율은 66.5%로 디젤차(20.7%)의 3배가 넘었으나 2012년 57.5%, 2013년 52.7%로 가솔린차의 점유율이 계속 하락했다. 지난해에는 가솔린차가 전년보다 0.9% 증가한 66만1784대가 팔리며 모처럼 판매량이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섰으나 디젤차의 성장세가 워낙 거센 탓에 점유율 하락을 피하지는 못했다.

이에 반해 디젤차의 비중은 2011년 20.7%에서 2012년 27.0%, 2013년 32.4%로 가파르게 높아졌고, 레저용차량(RV)과 수입차가 디젤차 판매를 견인한 지난해에는 판매량이 전년보다 무려 30.9%

## 작년 신규등록 가솔린차

66만1784대로 48%로 하락

2011년 67%서 매년 급감

늘어난 52만7638대에 달하며 비중이 38.6%까지 치솟았다.

그밖에 LPG 승용차가 전년보다 2.3%포인트 떨어진 10.3%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하이브리드와 전기차가 많이 판매되는 추세다.

디젤의 점유율이 높아지는 추세는 계속된다면 국내 디젤 승용차의 점유율은 몇 년 내로 디젤차 선호도가 높은 유럽과 엇비슷한 수준으로까지 상승하리란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2013년 유럽의 신규 등록 디젤 승용차의 평균 점유율은 53.3%로 조사됐다. 독일, 프랑스 등 디젤의 비중이 월등한 국가들 이외에 네덜란드(24.8%), 덴마크(32.0%), 스위스(37.0%), 핀란드(37.1%) 등 일부 국가는 디젤 승용차 점유율이 한국과 비슷하거나 더 낮은 편이다. 프랑스, 노르웨이 등 주요 유럽국가

가 디젤 승용차가 내뿜는 질소산화물(NOx)의 유해성에 주목하며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디젤 억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유럽의 디젤 승용차 점유율은 점차 떨어질 가능성이 커 한국이 디젤 승용차 시장의 내로라하는 큰손으로 떠오를 공산이 크다.

2013년 기준으로 유럽에서 한국보다 디젤 승용차가 많이 팔린 시장은 독일(144만556대), 프랑스(119만9729대), 영국(112만7758대), 스페인(47만9318대) 등 손에 꼽을 정도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자동차 시장에서 디젤 승용차의 비중이 미미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유럽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디젤차의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며 "유럽에서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우려로 디젤 승용차 시장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한국은 최근 유럽계 수입차를 필두로 디젤승용차가 이상하리만큼 잘 팔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 독일계 수입차 업체 관계자는 "유가 하락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는데다 직접 타보면 휘발유차에 비해 연비가 두드러지게 좋고, 주행성능도 뛰어나기 때문에 현재의 디젤차 유행 현상을 되돌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 기름값도 싸다는데 파워 갖춘 '터보 경차' 타 볼까



저유가에 인기  
기아차 '레이'  
작년 하반기부터  
판매 부쩍 늘어

사회 초년생인 서울에 사는 L씨(23·여)는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데다 거주하는 빌라의 주차 공간이 좁아 출퇴근용 차로 경차를 구입할 계획이다. L씨는 자동차 딜러와 상담 도중 경차에도 일반 차량보다 엔진 힘이 좋아 운전의 재미가 큰 터보 모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터보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다. 유가가 급등하지 않는 한 다소 연비가 떨어지는 터보 모델을 선택하더라도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저유가 흐름을 타고 경차에도 터보 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경차 고객 상당수가 최근 유가 하락세가 이어지자 기름을 좀 더 많이 먹더라도 동력 성능이 강력한 터보 엔진 탑재 차량을 선택하고 있다. 기아자동차의 경차 레이의 경우 유가 하락이 본격화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터보 모델 판매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다. 상반기(1~6월) 총 판매량 1만6984대 가운데 10.6%(1793대)에 머물던 레이 터보 모델의 비중은 하반기(7~12월)에는 총 판매량 1만3129대 가운데 19.84대를 차지, 15.1%까지 상승했다.

2012년 말 출시된 레이 터보 모델은 최고출력은 일반 가솔린 모델(78마력)보다 35.9% 높지만 연비는 l당 13.2km로 2.2% 낮다. 이처럼

레이 터보가 인기를 끌자 기아차는 지난해 또 다른 경차인 모닝 신차를 내놓으며 기존 라인업에 터보 모델을 추가했다. 지난해 출시 이래 현재까지 총 9000여대 계약된 신형 모닝 가운데 터보 모델은 350여대로 전체의 약 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모닝 터보 역시 최고출력이 106마력으로 기존 가솔린 모델보다 35.9% 힘이 세지만 연비는 l당 14.0km로 7.9% 떨어진다.

기아차 관계자는 "경차 고객은 차량 구매시 주로 경제성을 가장 먼저 따지지만 최근 유가 하락이 맞물리며 주행감을 중시하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터보 경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저유가 상황이 계속되고, 터보 모델의 역동성이 임소문을 타면 향유 판매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4월 서울모터쇼에서 신형 스파크를 처음 공개하는 한국GM도 기존 가솔린 모델에 터보 모델을 새롭게 추가할 것이 확실시된다. 한국GM 관계자는 "정확한 제원은 출시 직전에야 알 수 있다"고 확답을 피했으나 트랙스, 크루즈, 아베오 등에서 잇따라 터보 모델을 선보인 한국GM의 최근 행보에 비춰볼 때 스파크에도 터보 모델이 더해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연합뉴스



BMW 'i8'



벤틀리 '몰산 스피드'



람보르기니 '우라칸'

# 서울모터쇼 전세계 신차 33종 쏟아진다

## 4월2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

## 국내외 33개 완성차업체 참가

## 기아차 31대 현대차 28대 출품

오는 4월2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하는 2015 서울모터쇼에는 국내외 완성차 브랜드 33개 업체가 참가한다.

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자동차, 파워프라이자, 코니자동차, 현대상용차, 기아상용차 등 9개 국내 업체가 출품하며 해외 업체로는 8년 만에 참가하는 벤틀리를 비롯, 닛산, BMW,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 인피니티, 재규어 등 24개 업체가 전시장을 마련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가운데 람보르기니와 섀넌버스를 비롯해 미국

의 캠핑카 제작사인 에어스트림, 전기차 제조 전문 업체인 한국의 코니자동차와 미국의 디트로이트 일렉트릭은 올해 처음 서울모터쇼에 참가하는 업체다. 이번 모터쇼의 전시 규모는 총 9만1141㎡로, 350여대가 전시된다.

특히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6종을 비롯해 총 33종의 신차가 선보일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월드프리미어 1종을 비롯,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 콘셉트 등 총 28대를 전시하며, 기아차는 신형 K5를 포함해 총 31대를 출품할 예정이다. 한국GM은 차세대 웨보레 스파크의 데뷔 무대를 서울모터쇼로 잡았다. 차세대 스파크는 현재 창원공장에서 시범 생산에 들어간 상태다. 쌍용차도 세계 처음으로 선보이는 콘셉트카를 비롯해 18대를 전시한다.

수입차 가운데는 BMW가 640d, 650i, M6그란쿠파, i8을, 포드는 올뉴론데오, 올뉴링컨 MKX, 폴크스바겐은 골프R, 골프스포츠벤, 골프GTE 등을 국

내 처음으로 선보인다. 고성능·고급차 브랜드도 대거 전시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슈퍼카 브랜드인 람보르기니는 어드벤처 LP700-4 로드스터, 어드벤처 LP 700-4 쿠페, 우라칸 LP 610-4를 출품한다.

벤틀리는 최신 모델이자 고성능자인 몰산 스피드를 비롯해 컨티넨탈 GT3-R, 플라잉스피 V8를 선보이며 마세라티는 그란카브리오 스포츠, 그란투리스모 등 총 7종을 전시할 예정이다.

올해 서울모터쇼의 주제가 '기술을 만나다. 예술을 느끼다'인 만큼 IT기술과 친환경 기술 등을 접목한 다양한 차와 신기술도 만날 수 있다. 기아차의 레이와 쏘울, 르노삼성의 SM3, 한국GM의 스파크, BMW의 i3, 닛산 리프 등 전기차들이 선보이며 헤드업 디스플레이(HUD), 자율 방지 핸들 진동기능, 차선이탈 경고장치 등 미래 자동차의 기반기술 등도 대거 공개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자동차, 이것이 궁금해요

#### 스마트키 배터리 수명은 보통 2~3년

Q)스마트키 배터리,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전문가 의견)“요즘 대부분의 차의 키가 스마트키로 바뀌고 있습니다. 스마트키의 배터리는 보통 2~3년을 수명으로 봅니다. 이 기간 후 사용 중 감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면 배터리 교체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키 배터리 교체는 서비스센터나 자동차 용품점에서 하시면 됩니다. 만약 제때 배터리 교체를 하지 않아 스마트키가 작동이 안 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스마트키 안에 숨어있는 스페어를 꺼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아차 광주서비스센터 제공)

### 신축 원룸 매매

전대정문 2분 (신축 4층건물)  
룸12개, 올 대리석시공, 신축 (1층점포 1개, 2~3층 룸 10개, 4층 주택 1개, 옥탑)  
월수익 500만, 매매가 6억 7천  
추천물건 목포 용해동 전원주택 매매 용해동 교회앞 금호아파트 사이 대지310평 전주택 2채, 무화과나무있음  
매매가 3억 (용 1억 2천)

① 전대정문 1분코너 룸21개 룸20개 (1층 상가 2개) 월 700만, 매매가 7억 8천  
② 용봉동 용봉지구 미래도 A 코너 룸 19개 (1층상가, 4층 주택) 엘리베이터 완비, 대지 106평 월수익 900만, 매매가 11억  
③ 동구 대인동 고시원 룸 72개 월수익 1천2백 매매가 21억

④ 전대정문 2분 룸11개 4층 주택 월수익 400만 매매가 6억5천  
⑤ 동신대 후문 2분 룸 18개 (1층 상가) 주인세대 4층 매매가 10억  
⑥ 쌍촌동 원룸 1개 (운천역2분) 매매가 4천8백

한신공인중개사 062)527-7600

### 상가건물매매 (7층 사우나)

북구 우산동 7층건물 (올수리)  
월수익 900만 (주인 직접 운영시 월 1,800만 수익 발생)  
매매가 13억 (보 1억, 용 6억)  
추천물건 영주동 (화정동) 상가건물 1~2층 상가 3층주택 삼거리 코너앞

매매가 7억 3천 (보 1억 4천)

① 나주시 상명동 상가건물 2층 영강초교앞 1층 6칸, 2층 4칸 월수익200만, 매매가 2억9천  
② 서구 상무지구 정원3층 상가 30평 (보 1천, 월수익 70만) 매매가 1억2천  
③ 목포 용해동 전원주택 매매 (별리부지) 도로2차선열 비닷가 5분 무화과 나무 식재됨 대지 310평, 주택 2채, 50평 매매가 3억2천  
④ 수원지구 모이엘7101 3층 85평 보 2천, 월 200만, 용 2억5천, 매매가 3억5천  
⑤ 수원지구 3층 롯데마트옆 4층중 3층 62평 월수익 150만, 매매가 2억5천  
⑥ 서구 상무지구 수림6층 15평 보 3백, 월 32만, 매매가 4천8백

(주)대신 010-6670-9800

### 상무지구 사무실 임대 (5층 학원)

평수 100평 (전용 80평)  
이면도로코너 학원리모델링 함 주차 4대 무료 확보(주위 200대) 중심 상무지구에서 저렴함 보 3천, 월 130만

### 나주 상가 2층건물 매매

① 영신중, 고교 앞, 영강 초교 앞  
② 대덕 APT 유통인구 많음  
③ 대지 210평 (1층 6칸)  
④ 건물(2층2칸), 학원적합

매매가 2억 8천

010-6670-9800

### (주)대신경매 (입찰부터 매매 임대까지 원스톱지원 건축 리모델링 개발 무로상담해드림)

근린시설/근린주택

① 순천시 행동 (토 373㎡, 건물 1,304㎡) 감평가 17억, 최자가 12억  
② 순천시 연향동 (토 146㎡, 건물 276㎡) 감평가 5억7천, 최자가 5억7천  
③ 순천시 장천동 (토 423.1㎡, 건물 1,138㎡) 감평가 10억, 최자가 9억7천  
④ 남구 백운동 (토 315㎡, 건물 636㎡) 감평가 5억2천, 최자가 3억5천  
⑤ 남구 지석동 (토 105㎡, 건물 88㎡) 감평가 8천백, 최자가 5천백  
⑥ 북구 오룡동 (토 1,199㎡, 건물 3,987㎡) 감평가 35억9천, 최자가 24억  
⑦ 동구 계림동 (토 445㎡, 건물 1,558㎡) 감평가 10억8천, 최자가 4억9천  
⑧ 북구 일곡동 (토 9,600㎡, 건물 250㎡) 감평가 41억, 최자가 41억

근린 상가

⑤ 서구 차평동 (대 37㎡, 건물 165㎡) 감평가 3억9천, 최자가 1억  
⑥ 광산 도산동 (대 91㎡, 건물 128㎡) 감평가 1억2천, 최자가 5천5백  
⑦ 북구 중흥동 (대 13㎡, 건물 32㎡) 감평가 1억9천, 최자가 8천5백  
⑧ 서구 금호동 (대 140㎡, 건물 235㎡) 감평가 6억5천5백, 최자가 4억5천5백  
⑨ 광산 월계동 감평가 2억2천, 최자가 7천5백  
⑩ 서구 풍림동 감평가 8억7천, 최자가 4억8천

주요소

① 서구 미림동 (토 1,132㎡, 건물 278㎡) 감평가 9억9천, 최자가 6억9천5백  
② 남구 안동동 감평가 7억, 최자가 4억9천  
③ 광산구 북동동 감평가 8억8천, 최자가 8억9천

토지

① 서구 매월동 (토 1,960㎡) 감평가 3억5천, 최자가 2억4천7백  
② 남구 봉선동 (토 417㎡) 감평가 1억6천5백, 최자가 9천4백

010-6670-9800 / 062)382-5500

### 경매학원

이제 경매는 대중화시대

## 경매학원

↓

① 기본 실전스터디반  
② (평생 회원반, 소수 정원제) (경매 입찰부터 매매, 임대)

↓

### 개발 건축 리모델링까지 원스톱

↓

① 수요일 오전10시~12시 (저녁 7시30분~9시)  
② 목요일 오후 7시30분~오후 9시

경매 컨설팅 해드립니다

010-6832-9700  
062-382-5500